

 건설교통부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 Trust Builder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
		배포일시	2007. 6.20(수), 총 2매	
담당부서	건설관리팀	담당자	• 팀 장 안시권, 사무관 윤현만 • ☎ (02)2110-8802, hmyun@moct.go.kr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민·관 합동 감리제도 개혁방안 강구

(건설교통부, 감리업계 간담회 개최)

- 건설교통부는 이춘희 차관 주재로 6.20일 07:30분 부터 감리 협회장과 감리회사 대표자(6개사)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**감리업계 간담회**를 개최했다.
 - 경의선 가좌역 선로노반 붕괴(6.3) 등 최근의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하여, 발주청을 대신하여 건설공사를 지도·감독하는 **감리원(회사)의 역할제고**에 주된 논의가 있었다.

- 금번 간담회에서는 '94년 책임감리가 도입된 이후,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관리가 개선되었으나, 그 동안 감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**감리원의 기술부족이나 도덕성 해이**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
 - 정부에서 수립한 『**감리제도 개선방안(5.16)**』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**감리업계도 자체 발전방안**을 조속히 수립·추진키로 하였다.

<감리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>

- 감리원 교육강화(2년마다 1주 이상 의무화) 및 부실·부조리 발생시 업무정지 강화(현행 3~12개월 → 24개월) 등 **감리원 자질 향상 및 제재강화**
- 감리회사 등록취소 강화(5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시) 및 부조리 행위 발생시 당해 발주청의 신규감리 참여제한(PQ시 2년간 5점 감점) 등 **감리회사 제재강화**
- **비상주 감리원**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및 기성검사시 발주청 공무원 입회 등 **감리원 지도·감독강화** 등

<감리업계 자체 발전방안 주요내용>

- 안전사고 Zero화 결의대회 개최
 - 감리회사별 부조리 예방 교육실시
 - 감리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부실·부조리 감리자 특별관리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원 교육 강화
 - 비상주 감리원을 통한 안전지도 활동 강화
- 건설교통부는 **금번 간담회**를 계기로 감리제도가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의 선두역할을 확보하고, 부실·부조리를 저지른 감리원(회사)은 건설현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**건설공사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**